

한민족, 앞으로 전세계 부모국이 된다

父母國

세계 석학 및 예언가들 우리나라 주시하고 있다

인류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인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 아름답고 꿈 같은 세상을 표현하여 지상천국, 이상향, 태평세계로 부른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려고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금도 그 꿈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세계 정치, 종교, 경제, 문화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목표는 환상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목표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 그리고 마찰과 충돌로 파괴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다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난 이상기후, 지진, 지열고갈, 인구증가, 테러와 살상, 전쟁의 제반 현상까지 더하고 있다.

물질문명의 한계

현대 서양의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주의가 삶의 중요한 수단과 목적이 되어 동양의 숭고한 정신문명까지 좁혀 들어가는 인류사적 지구적 위기의 형국에 놓여 있다. 암담하게도 미래의 대안과 희망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마저 받는다. 전 지구적 혼란과 위기, 인간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찍이 서구의 물질문명의 한계가 동양의 정신문명으로 전 지구적 재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동서양의 지성들은 시사하고 있다.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인류는 농업, 도시, 사상, 산업, 지식혁명의 다섯 번의 혁명을 거쳐왔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정신혁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동양의 정신문명, 그 가운데서도 한민족이 구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전해진다.



민국활계 남조선(萬國活計 南朝鮮) : 한국을 살릴 방법은 남조선에 있다

이즈음에 세계의 중심에 "한류가 급부상"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자적 비전과 무한한 격려와 사랑을 담고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도덕군자의 나라, 순결하고 깨끗한 나라, 정이 많고 사람 살기에 인정한 나라로 동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독일의 그래픽 작가이자 신비주의 사상

가인 카타리나 베버 부인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한된 기독교 생활문화권의 탈피와 메시아의 출현 장소로 '아시아'를 내비치고 있다. 현대 서구 문명의 위기와 구원의 길, 새로운 정신적 이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 출현은 아시아에서 기대하고 있으며, 곧 신의 섭리라고 하였다.

게오르그는 25시 세상에 알려진 루마니아 작가로서 인간을 절망에서 구원할 열쇠가 한국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와 러시아가 시작되는 태평양의 열쇠라고 했다. 그는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열쇠의 나라' 한국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을 그는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했다. 강증산 선생은 "부처와 예수의 기운은 거두었다. 도덕 사회가 실현될 성지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태산 역시 "한국이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라고 예언했다.

한민족의 우수성 바로 알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중국의 불교를 해동불교로,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여 조선 유학으로 발전시켰다. 로마의 카톨릭은 한국의 기독교로 발전시켜 역으로 세계로 펼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본시 종교성향이 강하여 모든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이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이고 대 통합적 사상으로 승화 발전시켰다. 900여 회 이상의 외세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은근과 끈기, 불굴의 투지에 빛나는 총명과 슬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이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생명존중과 인간 존중 사상이 육비에 아로새겨져 있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가장 도덕적인 것과 생명과 인간 존중 사상이 가장 투철한 민족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우리 한민족의 숭고하고 우수한 정신문명이 세계 평화와 행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구촌의 대통합과 인류 평화, 그리고 지상천국 건설에 이바지할 민족으로 한민족이 될 것임을 동서고금의 유수한 예언서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왜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의 주역이 한민족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재인식과 바른 이해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한민족이여! 천손민족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웅비하라! 펼쳐라!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이요, 지상명령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3>

"지기지적(知己知敵)이면 필승(必勝)"

계속해서 공부를 해라. 지기지적(知己知敵)이면 필승(必勝)이라는 말이 손자병법에든든이 적을 알리면 적의 학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적을 몰라가지고 마귀의 학문을 몰라가지고는 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려면 우선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영어로

말을 하면 이쪽에서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대가 과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과학의 학설을 논하면 이쪽에서도 과학적인 학설로 응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기는 삶

멘토(Mentor)를 만나라

한 사냥꾼이 하루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탕만 치면서 숲속을 돌아다니다고 있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숲을 빠져나오던 중에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사냥꾼은 생각했다. "웬 횡재(橫財)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는걸!"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입에 먹이를 물고 있었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사냥꾼을 아연실색(嗟然失色)하게 만들었다. 호랑이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먹이를 멧돼지 앞에 밀어주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보고 낮이 빠진 사냥꾼은 멧돼지를 죽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궁금에서 다시 그 자리에 가보았다. 사냥꾼은 호랑이가 먹이를 가져다주며 멧돼지를 돌보는 광경을 다시 목격했다.

자연은 스스로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냥을 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가? 그는 자기 사냥감이 될 뻔했던 멧돼지를 본보기로 삼았다. 그날부터 사냥꾼은 숲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식량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배가 고파졌지만, 그냥 기다렸다. 우주의 섭리가 멧돼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어려워 갔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왔고,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라 생 각했다. 숲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다가왔다. 호랑이가 먹이를 물어다 주던 그 멧돼지였다. 그러나 그 멧돼지는 사

냥꾼을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그러자 사냥꾼은 생각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호랑이가 멧돼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듯이 나에게도 먹이를 물어다 줄 줄 알았는데 먹이는커녕 저 멧돼지마저 그냥 지나쳐 가버리니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을 봤나. 사냥꾼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왜 하필이면 앉고 있는 멧돼지를 따라 한 것인가? 하려면 호랑이가 했던 것을 따라 해야지.'

어떤 사람의 가르침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 멘토(Mentor)인 것이다.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mentor)로 삼아서 배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훌륭한 멘토를 통하여 오랜 기간을 배워야 하는 귀중한 지혜를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베풀고,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자신의 본보기 즉 롤 모델(role model)로 삼아야 한다. 자기 아들딸처럼, 제자처럼, 친구처럼 돌봐주는 사람, 때로는 내가 꿈꾸었던 것 그 이상의 꿈을 이루도록 챙겨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 진정성이 있고, 사랑으로 가슴이 따뜻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의 신념이 있으며, 당신을 열정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이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 어버이날 경축예배 2부 행사 사회 이승우

- ☆ 라준경의 테마가 있는 노래, 『담쟁이』 & 『아버지』
- ☆ 워십댄스 한국무용소고춤, 『주님의 영광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뜻에서』
- ☆ 하모니카 연주 김원찬, 『이 아름다운 나의 시온성』 & 『승리제단』
- ☆ 무궁화합창단, 『하나님의 음성을』 지휘/ 박철수, 반주/ 박인숙
- ☆ 무궁화관현악단, 『어머니』 & 『구세주 찬가』 지휘/ 김성우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